

# 세계도시

2006. 7. 17 제147호

## 목 차

### 도시경영·경제

1. 외국 우수대학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2. 아시아 6개 지역에 '오사카 프로모션 데스크' 설치 (일본 오사카府)
3. IC카드를 이용한 '커뮤니티 포인트 제도' 시행 (동경)
4. TV 프로그램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신도불이 먹거리 소개 (런던)
5. '아시아의 활기찬 도시, 오사카 비전' 수립 (일본 오사카府)
6. 규격 도시계획 허가 신청서 사용으로 비용 절감 (영국)
7. 인터넷 도정(都政) 모니터 앙케트 결과 발표 (동경)
8. 비정규 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 (동경)

### 디지털 도시

9. 정부에서 인터넷 포르노 차단장치 전 가정에 무료 배급 (호주)

### 복지·문화

10. 영화소식을 매주 시민에게 공고 (파리)
11. 라 빌레뜨 공원에 대형 오디오orium 건설 계획 (파리)
12. 노약자를 위한 주택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영국)
13. 바캉스 못가는 직장인을 위한 도심 인공 해변 설치 (런던)
14. 출산장려책 도입 1년 만에 성과 나타내 (호주)
15.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 市와 라디오방송간 파트너십 체결 (뉴욕)

### 도시환경

16. 관광버스에 환경라벨 부착해 대기환경 개선 촉진 (동경)
17. 순환·공생·참가 동네만들기 표창 수상 (동경都 네리마區)
18. 기후변화대책 중심의 런던계획 수정안 발표 (런던)
19. 도자기 공장에서 폐기 식기 재활용 (동경都 타마 뉴타운)
20. 공원별 관리계획 작성 (동경)
21.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 (영국)

### 도시교통

22. 도입 3주년 맞은 도심 혼잡통행료에 대한 평가 엇갈려 (런던)
23. 지하철역사 정원가꾸기 경연대회 개최 (런던)

### 도시계획·건설·주택

24. 시장 직속 디자인위원회 설치 (런던)
25. 2012년 런던올림픽 공원 건설지역의 환경친화적 재개발 계획 발표 (런던)
26.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대형마트 건물 설계 비판 (영국)

## 1. 외국 우수대학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가 미국 카네기 멜론大를 州수도인 애들레이드市에 유치했다. 호주에서 외국대학을 유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랜 州총리는, 이번 카네기 멜론大 유치가 애들레이드市를 대학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의 일환이며, 앞으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로 유학오는 해외유학생의 수를 2배로 늘리려는 전략적 계획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州정부는 애들레이드市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허브(defence software engineering hub)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카네기 멜론大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센터를 유치하는 데 300만 호주달러(약 215억 원)를 투자했다. 이것은 60억 호주달러(약 43조 원)에 달하는 공중 전투 요격 프로젝트 및 다른 국방 계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www.heinz.cmu.edu/australia/about](http://www.heinz.cmu.edu/australia/about))

### >>> 전문가 검토의견

현재 한미FTA 2차 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쟁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교육시장 개방으로 국내 교육산업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이와 같은 우려와는 전혀 다른 발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유명 대학을 유치해 대학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의 계획은 엄청난 수의 해외유학생(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생 포함)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우리도 해외로 유학생을 내보내지만 말고 적극 유치하는 방법도 찾아볼 시점이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가 우수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R&D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연상시킨다. 지방자치단체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사례로 보인다.

/조달호 산학연지원센터 소장(dhcho@sdi.re.kr)

## 2. 아시아 6개 지역에 '오사카 프로모션 데스크' 설치 (일본 오사카府)

오사카府는 200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경제교류와 정보발신의 거점 역할을 하는 '오사카 프로모션 데스크'를 아시아 6개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사카 프로모션 데스크란 민간의 지혜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전역에서 비즈니스 지원과 관광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오사카 프로모션 데스크는 중국 등베이 및 화남 지역, 한국, 베트남, 태국, 인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약 2년에 걸쳐 정비된다. 프로모션 데스크의 주요 업무는 오사카府에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기업 유치, 오사카의 관광과 비즈니스 정보발신 등이다.

([www.pref.osaka.jp/fumin/html/09965.html](http://www.pref.osaka.jp/fumin/html/09965.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경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단위의 정보발신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역시 동아시아의 경제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요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지역간의 경제교류 거점을 구축하는 데 민간이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

워크와 능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시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 소재 기업의 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산업경제센터장(sch@sdi.re.kr)

### 3. IC카드를 이용한 '커뮤니티 포인트 제도' 시행 (동경)

동경都는, 상점가가 지역주민, 대학, 기업, NPO 등 지역단체와 연대해 환경, 복지, 관광 등 지역 수요에 대응한 지역활성화와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동경都 세타가야區 카라스야마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포인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이 2006년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청소나 재활용 등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받은 커뮤니티 포인트를 상점에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C카드를 통해 커뮤니티 포인트 부여 및 쇼핑 포인트와의 교환이 쉬워졌다. 이 사업은 상점가와 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인트 축적 예>

포인트 명칭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
자원봉사 포인트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상점가	청소활동	175P/1회
재활용 포인트	수시	상점가 사무소, 상점가 이벤트 장소	사용한 잉크 카트리지를 가져올 경우	5P
NO 포장 포인트	물품 구입시	상점가 협력점	상품 포장이나 포장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P(포장종류에 따라 다름)
쇼핑 포인트	물품 구입시	상점가 협력점	물품 구입	1P/100엔

#### <포인트 사용 예>

사용 구분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	비고
물품 구입시	상점가 협력점	지불	350P/500엔으로 환산	350P부터 이용 가능
상점가가 실시하는 이벤트	상점가 사무소	이벤트 참가료	이벤트에 따라 다름	이벤트 개최는 부정기
환경사업	상점가 사무소	친환경 상품과 교환	친환경 가방 50P	수시
기부	포인트 기부처로 복지단체, 환경단체 등을 검토 중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6/20g67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6/20g67100.htm))

#### 4. TV 프로그램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신도불이 먹거리 소개 (런던)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BBC2의 'The Urban Chef' 프로그램에 런던 태생 요리사 Ollie가 출연해 런던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도불이 먹거리로 만든 요리를 소개했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먹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지역인 바넷(Barnet), 배터시(Battersea) 등지에서 지역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했다. 아울러 필요한 재료를 지역 상인에게 주문해 생산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신도불이 상품생산 체제를 만들기도 했다. 시민-지역사회-방송을 연결시킨 이벤트로 지하철 무가지인 '메트로' 독자 대상 식사 상품권 제공 행사도 진행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100](http://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100))

#### 5. '아시아의 활기찬 도시, 오사카 비전' 수립 (일본 오사카府)

일본 오사카府는 머지않아 맞게 될 인구감소 시대에도 생동감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다. 아시아가 안정된 성장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도시가 가진 여러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시아와 관계를 견고하게 해 오사카의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 하에 '아시아의 활기찬 도시, 오사카 비전'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오사카府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비전을 수립한 이유는 오사카에는 아시아와 밀접하게 교류해 온 역사적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오사카에는 제일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약 2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도시 수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다.

오사카를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세부 전략은 ①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아시아와의 교류, ② 연대와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아시아와의 협동, ③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아시아에의 공헌이다. 오사카府는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사카府뿐 아니라 府內 시정촌과 府民, 기업체, 관계단체, NPO 등과 협력해 역할을 분담해 나갈 계획이다. 오사카府를 초월한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서광역연대협의회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도 모색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책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 관계자가 모이는 도시 서밋 개최(2007년), 아시아를 향한 정보 발신기능 강화, 2008년 주요국 수뇌회의 유치 등이다.

([www.pref.osaka.jp/kikaku/asiav/index.html](http://www.pref.osaka.jp/kikaku/asiav/index.html))

### 한줄 뉴스

#### <영국>

- 지방자치단체연합, 정부에 도시계획권 지방 이양 확대 요구
- 온라인 도시계획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도시계획 관련 문서로 개인정보 노출 심각
  - 도둑이나 사기꾼에게 주소, 서명, 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유니온 운하 지역 대규모 재개발 계획 발표
- 의회, 수도권 주택개발에 따른 장기적 물 공급 대책 필요성 제기
- 밀턴케인스(Milton Keynes)市, 2008~2011년에 대규모 가변주택(Super-flexible) 약 4000가구 건설

## 6. 규격 도시계획 허가 신청서 사용으로 비용 절감 (영국)

영국 정부는 2년간의 연구 결과, 영국 전역의 지방정부가 규격 도시계획 서류(Standard Planning Form)를 사용할 경우 약 54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 규격서류는 인터넷에서도 도시계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이 규격 도시계획 서류를 사용하면 약 1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007년에는 약 3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규격 도시계획 서류를 사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lanning, 2006. 6. 9)

## 7. 인터넷 도정(都政) 모니터 앙케트 결과 발표 (동경)

동경都는 500명의 인터넷 도정(都政)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도내 거주 의향', '도정(都政) 만족도', '필요한 정책' 등 동경 도정에 대해 매년 앙케트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도 지난 5월에 앙케트를 실시했다. 앙케트 결과를 보면, "동경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91%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동경은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95%가 "그렇다."고 답변해 역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0%가 만족한다고 했다. 이는 2005년에 51%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에 비하면 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만족하는 이유는 지사의 리더십이나 교육개혁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었으며, 불만족이라고 답한 이유는 복지정책과 자녀양육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심을 끌었던 도정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1위가 치안대책 추진(57%), 2위가 수도 직하 지진 대책(55%), 3위가 디젤차량 규제 및 불법 경유 박멸작전(40%), 4위가 동경 올림픽 유치(33%), 5위가 도립 중고일관교(中高一貫校) 개교(32%)였다. 앞으로 都가 추진해야 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1위가 치안대책(71%), 2위가 방재대책(45%), 3위가 환경대책(41%)이라고 답했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6/06/60g6r2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6/06/60g6r200.htm))

## 8. 비정규 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 (동경)

동경都는 파트타임 직원, 파견직원, 계약직원 등 소위 비정규 직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및 임금제도, 교육훈련 정비에 노력하는 '트라이 기업'을 모집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컨설턴트 무료 파견, 챌린지 용자, 모델기업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 노무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의 고용환경정비 컨설턴트를 파견해 개선계획 수립에 조언을 하고, 수립한 개선계획에 대해 인정을 받은 기업에는 동경都 중소기업제도용자에 의한 특별대책지원용자(챌린지 용자)를 신청할 자격을 준다. 특별히 우수한 대책을 추진한 기업은 모델기업으로 지정되어 都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다. 트라이 기업 응모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 300인 이하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도내에 본사나 주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현재 비정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q2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q200.htm))

### 9. 정부에서 인터넷 포르노 차단장치 전 가정에 무료 배급 (호주)

호주 연방정부는 전 가정에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차단장치를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포르노로부터의 호주가정 보호'라 불리는 이번 계획은 정부 산하기관인 인터넷 관련 전담 NetAlert에 대한 연구지원 기금 500만 호주달러(약 36억 원)를 비롯해, 총 1억 2000만 호주달러(약 86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다. 1억 2000만 호주달러에는 NetAlert의 이전비용 및 학부모 교육캠페인, 인터넷 포르노 차단프로그램 시범실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차단장치를 무료로 배부하기는 하되 설치하는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획의 의도가 가정 내 부모의 통제권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인터넷 포르노사이트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통해 자녀가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쉽게 포르노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으며 무차별적 포르노사이트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ABC 방송 온라인, 2006. 6. 21)

### 10. 영화소식을 매주 시민에게 공고 (파리)

파리市는 372개 영화관에서 500개 정도 되는 영화가 매주 상영되고, 1년에 3000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이용하는 영화의 중심 도시다. 372개 극장 중 149개는 독립영화관이고 그중 89개는 예술전용관이다. 2006년에는 피 드 로아흐(Quai de Loire)에 MK2의 새로운 극장이 문을 열었다. 특히 市가 직접 영화산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파리 시민은 아동영화,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등 새롭고 다양한 영화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市는 문화부 및 학교와 연합해 교과과정에서 영화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에게 좀더 깊이 있고 비평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영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市는 이미지 포럼과 파리 시네마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www.cinema.paris.fr)

#### >>> 전문가 검토의견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정책 중 영화문화 발전을 위해 좀더 시민에게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드 라 노에 파리시장에 의해 정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관광 분야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 중심의 소개보다는 콘텐츠 중심 소개로 시사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영화 관련 정책,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 관련 이벤트, 서울을 주제로 촬영 중이거나 제작한 영화 촬영 현장 소개 및 제작진과의 인터뷰 등을 추가로 소개해, 영화에 대한 시민의 호기심과 욕구를 활성화해 문화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초빙연구위원(skhong@sdi.re.kr)

## 11. 라 빌레뜨 공원에 대형 오디토리엄 건설 계획 (파리)

프랑스 정부와 파리는 라 빌레뜨 공원에 약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오디토리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에 공개될 이 대형 오디토리엄은 라 빌레뜨 공원 한가운데 건설될 예정으로, 기존에 있던 플레엘(Fleyel)실의 재개장을 맞아 라 빌레뜨 공원에 파리를 위한 또 하나의 음악 공간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건물은 음악 기숙사, 음악과 춤을 배우는 고급 국립 음악학교와 연계해 사용될 예정이며, 교향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새로운 형식의 다른 음악장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립 콘서트장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파리는 이곳에서 연주될 프로그램을 위해 이미 주요 오케스트라에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musique.france2.fr/musique-classique/info/18761852-fr.php](http://musique.france2.fr/musique-classique/info/18761852-fr.php))  
([www.culture.paris.fr](http://www.culture.paris.fr))

### >>> 전문가 검토의견

이 계획은 도시공간에 틈만 있으면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파리 문화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크고 작은 오디토리엄이 파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완공될 대형 오디토리엄은 경쟁 도시인 베를린과 런던의 시설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리는 세계적으로 문화·음악도시로서 위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기획하고 있는 '한강 노들변 예술센터'와 동대문 운동장을 활용한 '풍피두 문화센터' 등에 오디토리엄 시설을 추가로 포함하거나, 현재 건설 중이거나 기획 중인 뉴타운 내에 오디토리엄을 설치해 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초빙연구위원(skhong@sdi.re.kr)

## 한줄 뉴스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중심의 '주정부 10년 계획' 청사진 발표
- 동경都 쿠니타치(國立)市 대학로, '도시경관 대상·아름다운 마을 풍경상' 우수상 수상
  - 시와 주민조직이 가로수 심기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보전에 힘써

### <북경>

- 2007년 말까지 종합정보관리센터 설치해 공공장소 감시카메라 정보 통합관리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 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전문 요양센터 건설

### <런던>

- 트라팔가 광장의 벨슨 제독상 복원과정 중 친환경적인 목재 사용해 시정 요구 받아
  - 런던시장, 향후 환경인증된 목재만 쓰기로 그린피스에 약속
- 교통박물관, 보전 2등급 건물 최초로 리모델링 과정에 태양열판 설치키로
  - 박물관 전기 사용량을 16%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415~2075톤 저감할 수 있어

## 12. 노약자를 위한 주택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영국)

영국 정부의 전문위원 그룹은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영국의 주택정책이 노인 인구분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구조도 노인보다는 젊은 세대 위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주거환경이 노인의 삶의 질과 독립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이해하는 한편 노인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Planning, 2006. 6. 7)

## 13. 바캉스 못가는 직장인을 위한 도심 인공 해변 설치 (런던)

세계 금융 중심지인 런던 도시에 야자수, 파라솔, 해변용 접이의자, 간이 바(bar)와 비치 발리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인공해변이 등장했다. 온라인 여행사인 라스트미닛 닷컴(lastminute.com)사가 바쁜 업무 때문에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해 핀즈버리 광장(Finsbury Square)에 가로 37m, 세로 40m의 모래사장을 설치했다. 매주 월~금요일에 개장하며, 요일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해변 스포츠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news.bbc.co.uk/1/hi/england/london/5138322.stm)

## 14. 출산장려책 도입 1년 만에 성과 나타내 (호주)

호주에서는 2005년 한해 총 26만 14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총 인구가 205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전년도 대비 2.4%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992년 이후 최고의 출산율로 기록돼 연방정부의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터 코스텔로 재무장관은 2005년 예산 수립 당시 인구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각 가정에 적극적으로 자녀갓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1인당 3000호주달러(약 215만 원)를 지급했다. 재무장관은 당시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권유하면서 “한 명은 엄마, 한 명은 아빠, 또 한 명은 국가를 위해 낳아 달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출산장려지원금뿐 아니라 가족수당 인상, 보육센터 증축 등의 가족부양책을 실시해 향후 인구노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4000호주달러(약 290만 원)로 인상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5000호주달러(약 360만 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6. 2)



## 15.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 市와 라디오방송간 파트너십 체결 (뉴욕)

뉴욕市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FM 라디오방송국인 WQXR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WQXR는 미국에서 청취자가 가장 애청하는 라디오방송으로, 市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공공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앞으로 공공서비스 안내 활동으로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市와 WQXR 라디오방송국간 파트너십은 市의 비영리 문화예술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문화예술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행사일정을 市에 신청하면 된다.

([www.nyc.gov/html/dcla/html/news/news.shtml](http://www.nyc.gov/html/dcla/html/news/news.shtml))

## 도 시 환 경

## 16. 관광버스에 환경라벨 부착해 대기환경 개선 촉진 (동경)

동경都는 '관광버스 환경성능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버스업계 및 여행업계와 합의했다. 이 제도는 일본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버스 이용 여행객이 친환경 버스를 선택함으로써 都와 관광지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관광버스를 배기가스 면에서 평가해 평가결과를 버스나 여행안내 팸플릿 등에 표시하게 된다. 都가 평가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동경버스협회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벨 교부 업무를 담당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6/20g6g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6/20g6g3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몇 년간 서울시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경都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관광버스 환경성능 표시제도는 시민과 자동차 운수업체들로 하여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개선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민선4기의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더욱 집약적이며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에 '녹색교통인증'을 부여해 친환경자동차와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를 구분·관리하는 정책 접근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추진 수단으로 ① 운수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② 자동차 정밀검사결과에 의한 자동차 환경성능 공개, ③ 녹색교통인증을 부여받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만하다.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 17. 순환·공생·참가 동네만들기 표창 수상 (동경都 네리마區)

동경都 네리마(練馬)區는 2006년 1월 환경성에서 주는 '순환·공생·참가 동네만들기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동네만들기 사업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구·시·정·촌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네리마區는 초목 보전·육성과 구민과 협동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區의 녹화(綠化)협력원 제도는 區와 구민이 하나가 되어 區의 초목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촉탁된 약 100명의 녹화협력원이 휴양림이나 공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휴양림제도 실시는 1975년에 오이즈미町 지역에 자생하던 얼레지의 보호 운동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 후 제정된 「초목의 보호와 회복 조례」에 '휴양림' 조항이 삽입되면서 휴양림제도가 본격화됐다. 휴양림 조성은 토지소유자와 무상대여 계약을 맺어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를 면제해준다.

([www.city.nerima.tokyo.jp/eco/daijin\\_hyoushou/hyoushou.html](http://www.city.nerima.tokyo.jp/eco/daijin_hyoushou/hyoushou.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市中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학교나 시민단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 최근에는 지역의 녹지관리를 주민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산림을 공모를 통해 구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단체와의 연계뿐 아니라 시민의 개별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녹지관리에 시민이 참여하면, 市의 녹지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송인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8. 기후변화대책 중심의 런던계획 수정안 발표 (런던)

런던市의 공간개발계획인 런던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집행하기 위해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임기 내에 런던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계획안이 실시된 2004년 2월 이후 2005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수정안이 최근 작성됐다. 이번 개정은 런던市 공간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달성목표를 공간계획 내용에 반영했다(2010년까지 15%, 2015년 20%, 2020년 25%, 2025년 30% 감량 계획).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당초 10%로 계획됐던 시설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방안이 개발업체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얻어 20%로 상향조정됐다. 기타 방안으로 도시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옥상·벽면 녹화 장려, 건축자재 구매시 기후변화 기여요소 고려 등이 제시됐다. 수정안은 2006년 시민 의견수렴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2007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검토보고서 작성 뒤 2008년 초 확정될 계획이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18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187))

## 19. 도자기 공장에서 폐기 식기 재활용 (동경都 타마 뉴타운)

깨지거나 쓸모없게 된 식기를 회수해 도자기 산지에서 재활용하는 운동이 동경都 타마(多摩) 뉴타운 환경조합 재활용센터에서 2006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회수된 식기 운반방법이 과제였으나 산지에서 동경都로 제품을 운반하는 트럭을 이용하기로 해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 센터에서 회수한 식기를 기후(岐阜)縣의 자기 공장에 보내 잘게 분쇄한 후, 점토 등과 섞어서 재활용 점토나 재활용 식기로 다시 제품화한다. 이 환경조합은 하치오지(八王子)市와 마치다(町田)市の 신도시 지역과 타마 뉴타운을 처리구역으로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식기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규모로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쓰레기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마 뉴타운은 2006년도 관련 예산에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회수뿐 아니라 재활용 식기를 판매하고, 재활용 점토를 활용한 도예 체험교실도 열 계획이다.

([www.tokyo-np.co.jp/00/tko/20060702/lcl\\_\\_\\_\\_\\_tko\\_\\_\\_\\_\\_000.shtml](http://www.tokyo-np.co.jp/00/tko/20060702/lcl_____tko_____000.shtml))

## 20. 공원별 관리계획 작성 (동경)

동경都는 2004년 8월에 수립된 '공원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해 2006년 6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77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에 우선 시안을 공시해 도민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공원관리 기본계획에 제시된 동경의 공원 만들기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정도를 계획기간으로 설정해 각 공원의 성격과 역할을 포함한 입지, 경위, 이용 동향 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공원별 관리 계획은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 운영과 정비에 관한 방침을 담고 있다. 동경都가 2004년에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정주도의 도립공원 관리방법에서 탈피해 경영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좀더 질 좋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관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k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k100.htm))

## 21.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 (영국)

최근 영국 전역 지역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개발을 추진할 때 10%의 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는 내용이 재생에너지협회(Renewable Energy Association)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제로 이산화탄소(zero carbon) 배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여러 안을 상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정에 친환경 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공급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주택 건설 재료도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Planning, 2006. 6. 8)

### 22. 도입 3주년 맞은 도심 혼잡통행료에 대한 평가 엇갈려 (런던)

2003년 도입 이후 3주년을 맞은 런던시의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다. 제도 도입 주체인 런던시 및 교통공사측은 교통정체가 26% 정도 개선됐을 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 도로 안전사고 감소,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자가용 중심 교통체제에서 대중교통(자전거 포함) 위주의 교통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 출신 의원 및 차량 운전자 등은 혼잡통행료 1일 8파운드(약 1만 4000원)를 지불하고도 3년 전에 비해 평균 시속 1.5km 정도만 운행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런던 도심 혼잡통행료 지불 방법이 다양해진다. 시는 혼잡통행료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입 적용기간을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를 당일 자정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100파운드(약 18만 원)를 물어야 했던 기존 제도에 대해 지역 기업가들이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제는 깜박 잊고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는 하루치 통행료에 2파운드(약 3600원) 수수료를 더한 10파운드(약 1만 8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33](http://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33))

([www.thisislocalondon.co.uk/news/stories/display.var.804876.0.london\\_cars\\_move\\_no\\_faster\\_than\\_chickens.php](http://www.thisislocalondon.co.uk/news/stories/display.var.804876.0.london_cars_move_no_faster_than_chickens.php))

([news.bbc.co.uk/1/hi/england/london/5088866.stm](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5088866.stm))

#### >>> 전문가 검토의견

혼잡통행료에 대한 평가는 일반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도 일부 의견에 따르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으니 흥미롭다. 다만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단순한 통행속도 증가나 시간단축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연료 절감, 도심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혼잡통행료 징수의 타당성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징수 및 범칙금 제도 개선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윤혁렬 도시교통부 연구위원(yoonhr@sdi.re.kr)

### 23. 지하철역사 정원가꾸기 경연대회 개최 (런던)

매년 6, 7월이면 런던 지하철역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고 지하철역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역사 정원가꾸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2006년에는 전년도에 참가한 17개 역의 2배에 가까운 33개 역사가 참여해 경연대회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정원, 대형 화분, 걸이형 화분, 종합 우승의 4개 부문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며 9월에 분야별 1~3위를 선정해 발표한다. 런던교통공사는 지하철 직원 누구나 자유시간에 역사 정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원가꾸기에 필요한 화초 및 씨앗도 지원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19](http://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19))

**24. 시장 직속 디자인위원회 설치 (런던)**

런던시장은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직속 '런던 디자인위원회'(Design for London)를 만든다.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디자인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 위원회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의 도시설계팀과 건축가 및 도시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런던 디자인위원회는 런던의 건축과 도시환경의 방향 및 지침을 정하는 역할과 주요 개발 프로젝트 평가 및 통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친환경적이고 생활하기 편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

([regennet.hbpl.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0db0ff85-0ad0-4831-94a9-922659ee25cd&e=1](http://regennet.hbpl.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0db0ff85-0ad0-4831-94a9-922659ee25cd&e=1))

**25. 2012년 런던올림픽 공원 건설지역의 환경친화적 재개발 계획 발표 (런던)**

런던시와 중앙부처인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2012년 런던올림픽 공원이 들어설 런던 동부 Lower Lea Valley 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수로와 수변환경이 발달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물과 어우러지는 도시, Water City'로 테마가 정해졌다. 런던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 및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했던 런던 동부지역에 3~4만 호의 새로운 주거시설과 5만 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개발계획의 목표로 정해졌다. 재개발계획안은 런던시,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인 London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 런던개발청의 파트너십으로 작성되었고 2006년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www.london.gov.uk/mayor/planning/lower-lea-valley.jsp](http://www.london.gov.uk/mayor/planning/lower-lea-valley.jsp))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066](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066))

**26.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대형마트 건물 설계 비판 (영국)**

런던 건축가 주간에 맞춰 열린 '건축과 건조환경 위원회'(CABE: the Committee on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에 참석한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문화담당 차관은, 영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가 추하고 획일적으로 지어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느 도시에도 있는 Tesco, Ikea 등 대형상가 건물 때문에 도시의 개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부는 2006년 8월부터 집행에 들어갈 '설계 및 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획일화된 도시 건축설계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225855.html](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225855.html))